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추진현황과 과제



글 · 박용주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1. 서론

흔히들 ‘의료대란’으로 표현했듯이 작년은 의·약계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다. 특히 국민에게 과중한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의료계·약계·정부가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계 집단폐업 등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의약분업제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 의

료보험수가, 의료인력수급,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 의료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하튼 작년의 의료사태를 통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 보건의료문제는 정부와 의료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난 해 우리 국민들이 감내한 고통과 불편에 대해 이제는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해 국민에게 끼친 고통에 보답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특별위원회의 현황 및 배경

지난 해 의·정 대화 및 약·정 대화를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문제와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런 현안들을 개혁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 직전인 6월,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보건의료발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시적으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8월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의료계, 약계 등을 비롯한 각계 대표와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총괄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의료보험수가전문위원회, 약업발전전문위원회 등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방안, 의·치과 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수준 향상,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약산업 및 약사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전문위원회별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적인 토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쉽게도 참여분위기 미성숙,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의·정 대화 및 약·정 대화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한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에 대한 주요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의약분업 시행을 계기로 표출된 보건의료문제는 물론, 범국민적 관심과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올 해 초부터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성·운영계획 및 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아직 특별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단체 등이 안(案)으로 제시한 특별위원회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3.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

정부의 특별위원회 설치방안은 의·정 및 약·정 대화결과를 토대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각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위원회간 상충되는 의견이 제시될 경우를 고려하여 이견조정을 위한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는 의료제도,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는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30인 이내로 관계부처 국무위원, 의료계, 약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도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15~20인 이내로 구성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특히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이 국민의 합의와 지지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전문위원회, 보건산업전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는 여러 직능분야가 관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위원구성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과제는 의·정 및 약·정 대화에서 논의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차등수가제, 세제지원 및 수가체계 연구,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대책, 의과대학정원조정, 약사 및 약학교육 제도, 보건산업발전 등을 포함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과거 총리직속 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위원회가 운영되면, 수많은 과제들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기존에 상정된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과제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보건의료환경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 선진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설치방안 및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 위원회 규정 제정이 끝나면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4. 특별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

우선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보건의료 현안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특별위원회의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특별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질 때 위원회에서 마련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들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실추된 신뢰감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

민들의 지지를 받는 개선방안들만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발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약계 등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의약계·시민·소비자 대표의 위원들은 솔직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보건의료 공급자인 의·약계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할 때 특별위원회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제기해 온 모든 문제를 보건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상호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될 때 보다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들이 도출될 것이다.

셋째,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함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체계 및 사회변화,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거친 대안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분야의 의견과 정확한 실태를 반영한 대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간 또는 전문위원회간에 논의되는 과제에 대해서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협조 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제도나 약사제도, 보건산업, 건강보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와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겠지만 운영과정에서 상호 협조적인 자세가 보다 중요할 것이다.

5. 결론

의약계나 국민들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할 과제도 많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중요성도 크다. 그 동안 상정된 모든 보건의료문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제시해야할 부담감을 특별위원회는 가져야 할 것이다.

조만간 다양한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제기된 보건의료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종사자 모두의 적극적이고
진솔된 참여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계가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다가가
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